

# 강재섭·장윤석·이상배 빼고 줄서기 끝냈다

대구·경북 한나라 의원  
12-10 차편이 더 많아

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 간의 검증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, 대구·경북 지역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'줄서기'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.

특히 경선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당지지자들도 특정 예비 대선주자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. 지역에서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는 A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언급하면서 "물길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선장"이라며 이 전 시장을 편들었다. 또 B의원은 사석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 대선주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.

박 전 대표를 제외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 가

운데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은 6명, 이 전 시장측은 4명, 중립은 1명으로 분류된다.

지난 1-2일 이 전 시장의 대구 방문 때 이 전 시장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안택수 의원(북갑)과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(수성)을 외에 김석준 의원(달서)과 이명규 의원(북을)도 이 전 시장측으로 분류된다.

김석준 의원은 이달 들어 이 전 시장의 두차례에 걸친 대구 방문 때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 시장 지지파로 인식되고 있다. 김 의원은 이 전 시장이 1998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 워싱턴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주성영 의원(동갑)은 최근 박 전 대표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. 주 의원은 설 이전 지역구의 당원간담회에서 "유승민 의원(동을)과의 친분때문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한다"는 입장을 분명

히 했다.

이 밖에곽성문(중-남구)·이해봉(달서)·이한구 의원(수성갑) 등이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되며, 박종근 대구시당 위원장은 "시당 위원장으로 중립을 지킨다"고 말하고 있지만 박 전 대표 쪽이다.

15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한나라당이 14개 선거구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에서는 이 전 시장측이 6명, 박 전 대표측이 6명, 중립이 2명으로 분류된다.

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(포항남-울릉)을 비롯해 이병석 의원(포항북)과 김광원(영양-영덕-봉화-울진)·정종복(경주)·권오을 의원(안동)이 이 전

시장측으로 알려지고 있다. 또 임인배 의원(김천)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이 전 시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.

박 전 대표 진영에

는 정치입문 단계에서 박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았던 최경환 의원(경산-청도)이 캠프 부분부장을, 김재원 의원(군위-의성-청송)이 경선 대리인을 각각 맡고 있다. 정희수 의원(영천)도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2005년 재선거에서 박 전 대표의 지원유세를 의식하고 있다. 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, 이인기 의원(고령-성주-칠곡)은 경북지역 경선 책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를 지역구로 둔 김성조 의원(구미갑-전략기획본부장)과 김태환 의원(구미을)은 지역주민들의 친(親) 박근혜 성향 때문에 박 전 대표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장윤석 의원(영주)과 이상배 의원(상주)은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.

김상진기자 sikim@yeongnam.com  
최근기자 kons@yeongnam.com

■ 대구·경북 한나라당 의원 대선 지형도

			
<b>박종근</b>		<b>이명박</b>	
<b>대구</b>	박종근 이해봉 곽성문 유승민 주성영 이한구	<b>경북</b>	최경환 김재원 정희수 이인기 김성조 김태환
	<b>중립-유보</b>		<b>중립-유보</b>
	강재섭		장윤석 이상배
	<b>박종근</b>		<b>이명박</b>
	안택수 주호영 김석준 이명규		이상득 이병석 김광원 정종복 임인배 권오을